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융합 기술 - 메타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집호를 내며



조병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상섭
KBS N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웹 3.0이 디지털 미디어 융합산업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는다.”

2022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2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 지형의 변화 양태를 발표하며 디지털 미디어 융합기술의 새로운 서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메타버스 기술이 그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 구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들 또한 신년 핵심 키워드를 ‘메타버스’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IT 기업들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다수 이용자가 교류하는 핵심 플랫폼이 된다는 비전을 내세우는 등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야흐로 메타버스란 ‘현실을 초월(Meta)한 세계(Universe)’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상상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히 놀고 즐기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융합의 핵심 수단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추세이기도 하며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2022년 빠르게 변모하는 각 국가정책 및 미디어 기업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특집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집호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융합 기술-메타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정책 현황 및 R&D 연구개발 사업, 미디어 콘텐츠의 메타버스 유형화 분석, 음악 콘텐츠, 방송 접목 서비스 등의 분야와 ADHD 진단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공간 융합 교육 훈련 등의 응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미디어 융합의 전반적인 동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총 정부기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7개 기고문과 ETRI 기관 소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국내 디지털 콘텐츠·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현황 및 R&D 동향 / 윤준상, 오세윤’은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콘텐츠·미디어 분야 주요 정책 현황과 R&D 투자 동향, 2022년도 콘텐츠·미디어 분야 R&D 과제기획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사업 동향 / 고병수, 김명하’에서는 문화체육관

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감 콘텐츠 연구개발사업과 메타버스와 연계한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디어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폼화 유형화 및 미래 전망 / 송민정’은 콘텐츠 산업의 메타버스 활용 분야, OTT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폼화, 미디어 산업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폼화(Platforming)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VR을 이용한 ADHD 진단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 손하민, 이준희, 최정훈, 정태명’은 메타버스 융합응용기술로써, VR을 이용한 ADHD 진단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 객관적인 ADHD 진단을 위한 Hippo T&C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인 AttnKare-D를 제안하였습니다. 즉, AttnKare-D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따라 통제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정량화함으로써 진단을 객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Metaverse and Music : 음악 콘텐츠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만남 / 고윤화’는 음악 콘텐츠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국내외 적용 사례, NFT, 저작권, 디지털 트윈 등의 이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고, ‘메타버스(Metaverse)와 방송 미디어 / 정상섭’은 국내외 방송 미디어 동향과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 주요 이슈 및 장단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대 공간 워크스루형 XR(eXtended Reality) 융합 교육 훈련 시스템의 주요 기술과 특성 / 최정환’은 대 공간(Large Space) 워크스루 (Walk Through)형 XR 교육 훈련 시스템의 개요와 함께 대 공간 워크스루형 XR 교육 훈련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관 소개에서는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탐방을 통해 ETRI 미디어부호화연구실 주요 연구 소개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는 본 특집호 주제인 “차세대 디지털 미디어 융합 기술-메타버스 콘텐츠를 중심으로”를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기고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본 분야에 입문하시는 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활용을 준비하시는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호 특집호에 좋은 원고를 기고해 주신 저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특집호 완성을 위해서 원고를 기꺼이 수락해 주신 학회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일정관리와 편집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학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